양혜규의 서기 2000년은 언제일까?

October, 2019 | By 황석권 편집장

양혜규의 서기 2000년은 언제일까?

"전시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전시소감은 항상 전시가 끝난 뒤에 밀려와요." 이런! 기자의 진부한 질문 탓에 머쓱한 분위기로 인터뷰가 시작됐다. 기억을 되돌려보니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전〉(2015.2.12~2015.5.10, 리움)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국내 개인전이다. 꽤 오랜만에 열리는 개인전임에도 국내에서 그의 공백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모교 슈테델슐레 교수 임용, 볼프강 한 미술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이상 2018) 등 각종 수상 소식과 사우스런던 갤러리(2019), 몽펠리에 라 파나세 현대예술센터, 퀼른 루트비히미술관(이상 2018), 베를린(울킨들 현대미술센터(2017), 파리 퐁피두센터(2016), 베이징 올렌스 현대미술센터(2015) 등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 전시 소식이 잇달아 전해졌기 때문이었을까?

이번 전시는 대중음악가 민해경이 1982년 발표한 동명의 노래에서 타이틀을 따왔다. 전시가 열리는 국제갤러리 K3 입구에는 바로 그 노래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온다. 이 곡이 발표될 당시는 서기 2000년이 먼 미래였나보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동경이 가득했었나 보다. 노래의 리듬에서 풍기는 발랄함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런데 양혜규가 1977년(추정) 두 동생과 그렸다는 〈보물섬〉이 전시 홍보 이미지로 사용된 점을 떠올려보면 과거와 현재의 시간에 벌어졌거나 벌어지는 현상을 동일한 시공의 축에 놓아 대단히 복합적인 양상의 공간 구성을 구축하려 했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전시장은 작가의 지난 몇 년간 행보의 압축판이다. 블라인드를 소재로 한 〈솔 르윗 동차(動車)〉(2018~), 〈소리 나는 운동〉(2019)은 제작 연도와 상관없이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교도에 대한 리서치를 근거로 보편적 감성을 대변하는 벽지 작품도 2011년부터 진행했던 작업이다. 그래서 작가의 이전 작업을 한곳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이채로웠다. 더불어 연무와 사운드, 향까지 병합되어 오감을 자극한다. 스스로 평소와는 다른 구성을 채택했다는 양혜규는 특이함에 천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기 드물었던 사운드 작업은 2018년 4월 DMZ에서 열린 남북정상 회담 당시 도보다리 독대 상황에서 채집한 소리를 소재로 제작했다. 그야말로 가장 비밀스러웠던 역사의 한 장면이 새소리, 카메라 셔터 등 사운드라는 독특한 상상의 매개체를 만나 시각정보 없이 극적 장면이 연출된다.

양혜규는 작업을 통해 시간, 공간의 요소들을 주관화, 재맥락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관람객은 작업을 규정하는 비평적 맥락을 발견하기 난감해 한다. "쉬운 답에 함정이 있죠" 관계성은 쉽게 요약될 수 없으며 다른 역사와 문화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하게 이해하고 다소 심각하게 펼치는 것이 윤리적 작업 태도로 보는 그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단일한 공간에 존재하는 그 많은 요소 하나하나가 신기하게도 선명히 떠오른다. 이는 명확해진 그의 작품 관람법을 익힌 것이 아니라 우열(優劣), 신구(新舊) 등 인식의 좌표 대척점에 놓이는 요소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놓이자 동등한 가치로 인식되기 때문이리라. 그렇게 인식의 확장을 권유하는 양혜규다. **황석권** 편집장

위 〈솔 르윗 동차 - 입방체 하나 빠진 입방체 위에 6 단위 입방체〉(사진 오른쪽)
일루미늄 블라인드, 바퀴, 혼합재료
362×225×225cm 2018
〈배앙과 소진〉(사진 왼쪽 벽면 설치)
디지털 프린팅 2018